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J E S U S L O V E S Y O U

섬김의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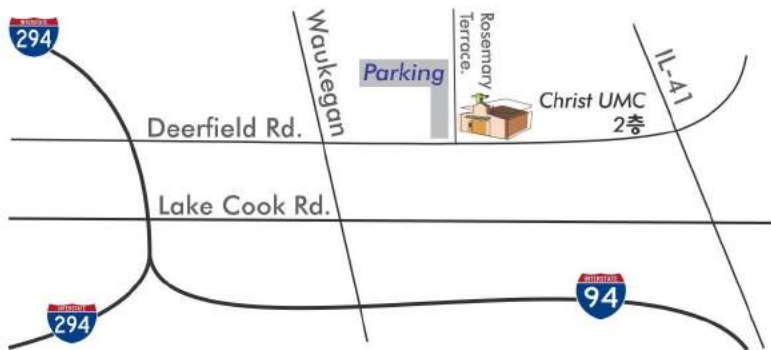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일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5:40 AM
SATURDAY 6: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섬기는 목회자 : 김정배 목사

치유, 회복, 나눔

October 21, 2018

2018년 10월 21일

4-42호

결실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가복음 11:34~35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 | |
|---------|--|
| 하나님 앞으로 |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 민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
| 말씀과 결단 | 성경말씀 요한복음 12:1-8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내게 있는 향유 옥합 |
| 헌신과 나눔 | 봉 헌 / 정줄리 권사, 최내권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
| 삶과 세상으로 | *주께 가오니 *죽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읽어 씁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서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유덕하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열왕기하 16:32-38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지 않은 요담왕

묵상에세이

주님을 만난 내가 행복할 수 밖에 없는 20 가지 이유(2)

11. 주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왜 내가 멍에 속에 있겠는가? (갈 5:1)
12.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내가 정죄받은 것처럼 두려워 하겠는가? (롬 8:1)
13.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내가 외로워하겠는가? (마 28:20, 히 13:5)
14.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는데 왜 내가 저주를 받았거나 불행한 희생자라고 느끼겠는가? (갈3:13-14)
15. 내가 모든 환겨에서만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왜 내게 불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빌 4:11)
16.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죄로 삼으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왜 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끼는가? (고후 5:21)
17.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는데 왜 내가 박해를 받는 것처럼 피해의식을 갖겠는가? (롬 8:31)
18.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 내주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지식을 주시는데 왜 내가 혼란에 빠지겠는가? (고전 2:12, 14:33)
19.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에 이길 수 있는데 왜 내가 실패할까 두려워 하겠는가? (롬 8:37)
20. 예수께서 세상과 세상의 환란을 모두 이기신 것을 알고 나니 담대함이 있는데 왜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겠는가? (요 16:33)

환 주간의 기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위해 나의 신앙이 먼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성장하게 하시고 지식과 진로를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EM PASTOR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민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영광을 주시라 하니” (미수기 14:28)

“음악은 나처럼? ‘음악의 교리화’가 빚어낸 상처부터 회복해야”

대한민국 교회는 ‘송리스트(Song List) 전쟁’ 중이다. 예배팀과 예배자 사이에 서로가 원하는 찬양이 다르고, 그 안에는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의 세대 차이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성세대는 오직 찬송가를 기준으로 옛날부터 부르며 은혜를 누리왔던 복음송을 좋아하고, 젊은세대는 점점 발전하는 음악의 흐름에 적응된 현대적인 찬양을 좋아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예배팀이 젊은 세대 위주로 구성됐고, 자신들 세대에 맞는 현대적 찬양을 들고 나와서 부르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런 예배의 예배자들 분포를 보면, 기성세대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세대 중심의 예배팀과 기성세대 중심의 예배자들 사이 세대 차이가, 찬양 선곡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과연 찬양의 세대 차이가 단순한 시대 상황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할 수 있는가’이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시대적인 상황을 넘어 이 세대차이를 촉진시키는 이유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찬송가와 복음송으로 찬양사역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음악의 ‘교리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예배자들이 마치 교단과 교회의 신학적 교리가 달라서 각자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것처럼 음악을 정형화 해온 것이 교리화 현상처럼 되어 버려, 음악인들끼리 서로의 음악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예배자들도 자신들이 속한 교회와 좋아하는 예배단체 또는 아티스트의 영향 때문인지, 그런 음악이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교회에 가면 이런 음악을 해야 되고, 다른 교회에 가면 저런 음악을 해야 되고 하는 식으로, 음악을 신학처럼 교리화시킨 교회와 단체들, 아티스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 아직도 몇몇 예배음악 사역자들이 지금까지 음악의 스타일, 장르, 사운드의 톤 등을 교리화시키는 아주 큰 실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면 자기 음악이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가치를 드러야지. 배워서라도 음악성을 기르고 잘 하라”고 한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잘하고 자기보다 더 현대 대중에게 맞으며 유행하는 음악을 하면 갑자기 신학적으로 비판을 가한다. “어떻게 예배 안에 그렇게 세속적 코드를 가져올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전자 음악을 쓸 수 있어? 어떻게 음색과 톤이 저럴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래서 찬송가를 현대적 음악 스타일로 편곡하거나, 전체 송 리스트 중 일부를 기성세대에 특화시켜 준비하거나, 새로운 찬양이나 어려운 찬양을 1 곡씩 선곡하되, 몇 주간 반복하여 불러서 모든 세대에 익숙하게 만드는 등 여러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왔다. 이런 대안의 고민이 계속되어, 더욱 적절한 방법들로 발전되고 개발되도록 힘써야 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배 음악은 음악의 시대적 변화에 발을 맞춰왔고, 언제나 과거와 현재의 음악적 추구가 변해왔다는 점이다. 그 중에 찬양은 특별히 ‘함께 부르는 것에 최적화된 특별한 영역의 음악’이었고, 음악성의 추구보다 신앙의 고백을 담는 것에 더욱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음악의 스타일에 대한 스스로의 고집보다는, 함께 공감하고 함께 부르며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음악이 선호돼야 한다. 아울러 예배팀은 먼저 이 찬양을 함께 불러야 할 예배자를 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부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 우선된 고민아래 변화되는 음악의 흐름을 담고 세대를 품어야 한다.

- 백성훈 목사 『팀사역의 원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로 하나님께 칭찬 받으십시오.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도록 풍성한 열매를 더 많이 맺으십시오.

1.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간입니다: 선교와 전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2. 오늘은 Christ UMC 의 Youth Sunday 입니다. 청소년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섬김의 교회 학부모들이 초등부 사역과 학생들 지도합니다. Christ UMC 의 주일학교 사역에 참여와 협력에 감사합니다.
3. 오늘 정기제직회로 모입니다. (안건: 3/4 분기 결산 및 사역 보고)
4. 오늘 저녁에 Oikos 모임을 가집니다. 친교와 영적성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ell 사역이 되도록 합시다.
5. 17 주간 성경 일독운동이 Oikos 사역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점검해 줍시다.
6.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나눕시다.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경 학생(누)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 | | | | | |
|----|---------|-------------|-------------|-------|-------|
| 예배 | 주일예배기도 | 10/14 | 10/21 | 10/28 | 11/4 |
| | | 구민집사 | 박진성집사 | 김훈태집사 | 정줄리권사 |
| 예배 | 금요일예배기도 | 10/19 | 10/26 | 11/2 | 11/9 |
| | | 오정은집사 | 유덕하집사 | 구은강집사 | 김태성집사 |
| 예배 | 주일헌금위원 | 10/14 | 10/21 | 10/28 | 11/4 |
| | | 최내권집사/정줄리권사 | 김태성집사/최선운집사 | | |
| 예배 | 주일안내위원 | 10월 | | | 11월 |
| | | 구민집사 | | | 최내권집사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 요한복음 11:17-46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말했지만 마르다는 실제로는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안다고 말하는 것만큼이 아니었다. 마르다의 변화되지 않은 '피상적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된다. 믿음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가? 믿음이 아직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피상적인 믿음이라면, 이제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 귀는 믿음의 귀로, 입술은 믿음의 입술로 변화되어야 한다.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며, 믿음의 귀로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입술로 표현하며, 믿음이 삶을 통해 나타나야만 한다. 이렇게 믿음이 인격을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전진하자.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 요한복음 12:1-8

베다니에서 열린 잔치에서 마르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것을 왜 드렸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 요한복음 12:1-8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 은혜를 갚고자 애를 쓰는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 베다니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열린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잔치에서 마르다는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전에 예수님은 이곳에서 식사를 하실 때도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자기 혼자만 바쁘게 일하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화가 나서 예수님 앞에서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마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서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마르다의 모습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분명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혼자서만 일을 하게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는데, 이제는 그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께 조금이나마 그녀의 마음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가 겉으로는 삶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직과 세속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면 거룩한 일이 됩니다.

반면에 때로는 예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잔치 중에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께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담긴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리아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흘러내렸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예수께 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어 드린 사건은 말 그대로 순간에 끝나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옥합이 깨어졌을 때, 옥합 안에 있던 향유는 말할 수 없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예수께 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난 후에, 남은 것은 깨어진 옥합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이 마냥 기뻐서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드린 향유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예비 행위라고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삶을 드리는 성도,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